論 壇

학생운동의 교육사회학적 고찰

韓 駿 相
(延世大 敎育學科)

오늘날 대학생들은 미래가 곧 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상당한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비합리적이고 성급한 느낌마저 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기성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생각케 하고 재정립하게 할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하다.

Ⅰ. 머리말

대학생의 현실참여와 학생운동 현상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단지 두 가지 점만이 각국마다 상이하다. 첫째 학생운동의 출현양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둘째 출현되는 학생운동에 대한 대처방안이 각국마다 다를 뿐이다. 대처방안의 차이는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학생운동은 한 가지 주제에 의해 묶어진다. 즉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 문제가 무기력에로의 굴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제로 서구사회의 학생운동이 수렴되어질 수 있다. 서구사회의 대학생들은 새로운 원초적인 사회 구축에 대한 이상주의적 집착이 강하다.

제 3 세계에서도 학생운동은 전개된다. 제 3 세계 대학생들은 문화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으로 자국의 근대화 문제와 민족주의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가들이 문화식민주의에 대해 무기력하며, 근대화 문제를 정치가들은 이해관계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학생운동은 일어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 대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의 해결 문제이다. 또한 강압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심각하다.

왜 학생운동, 학생의 현실참여가 야기되고 있는가? 학생운동의 속성은 무엇인가? 누가 학생운동을 주도하는가? 학생운동을 통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 제기는 오늘날의 대학생 현실참여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본 글에서는 대학생의 현실참여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한다. 단지 학생운동에 대한 교육사회학적인 이해의 틀만을 제시·논의하기로 한다. 본 글에서 다루어지는 대학생 현실참여에 대한 논의가 한국 실정에 적합한지 어떤지도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에 관한 주제는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현실참여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사회학적인 관점은 대체로 3가지이다. 첫째 심리학적 관점, 둘째 세대차 관점, 세째 정치적 관점이 있다. 각 관점은 여러 가지 하부관점들을 취하고 있다.

Ⅱ. 대학생의 현실참여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대학생의 현실참여 문제를 연구하는 정치학자, 사회학자, 교육사회학자들은 대학생들의 현실참여에 관한 연구를 운동권 참여자 분석의 관점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참여자의 행동·심리적 특성과 비참여자의 행동적·심리적 특성을 비교하는 식의 연구방법을 택한다.

운동권 대학생들의 행동적·심리적·가정적 특성은 대체로 이렇게 지적되어지고 있다. 즉 대체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유하다. 일류대학에서 공부한다. 똑똑한 학생들이다. 대학생활을 통해 특권의식을 누리는 집단들이다. 인문·사회과학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진보주의적인 개신교도 가정 출신들이다. 이런 지적은 미국의 학생운동권 참여학생들에 관한 연구결과들이었다.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에서 조사된 연구들은 학생운동권 참여자들의 출신성분을 노동자, 사회주의 지향 가정 출신으로 밝히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대학생집단을 여러 유형으로 갈라내어 학생운동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Kenisston은 대학생집단을 운동권 학생들과 고립학생들로 대분한다. 운동권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변화를 강조하며 그런 행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고립된 학생들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의미 찾기 등에 몰입한다. Smith, Haan 과 Block (1970)은 대학생집단을 2개의 유형으로 대분했다. 첫째 유형은 비운동권 집단이다. 이들은 사회·정치적 활동·운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단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업들을 전통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유형은 운동권 학생집단이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정치적 활동이나 요구를 주창한다. 운동권 학생집단은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첫째 유형은 건설주의적 운동권 학생(constructivists), 둘째 유형은 극단적 저항집단(dissidents), 세째 집단은 일반 운동권 학생(activists)이다.

건설주의적 운동권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문제가 사회화될 때에만 학생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부모들의 사회·정치적 가치를 준수한다. 반면 일반 운동권 학생과 극단적 저항집단은 전통적인 가치 규범을 거부한다. 기존의 사회정치체제의 수용도 거부한다. 일반 운동권 학생들은 보다 이상주의적으로 공정한 사회구축을 위해 이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극단적 저항집단은 기존의 제도·기관에 정면적으로 대항한다. 한마디로 기존의 사회·정치적 이념에 정면적으로 도전한다. 그들의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정치적 이념보다도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한다.

Ⅲ. 학생운동과 세대차 이론

어떤 사회과학자들은 세대간의 차이(generation conflict) 관점으로 대학생들의 현실참여 문제를 논의한다. 세대간의 차이 문제로 학생운동을 이해하는 데 동원되는 주제는 3가지이다. 첫째, 세대간의 갈등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변동과 세대차이 주제, 둘째 세대차이는 근본적으로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으로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세대갈등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주제, 세째 세대간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의 쟁취를 위한 힘의 대결이다라는 입장의 정치권력과 세대간 갈등의 주제가 학생운동 문제를 세대간의 갈등으로 교육사회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의 현실참여를 사회변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의 가치와 기존세대의 가치관의 갈등차이를 강조한다. 즉 부모세대들이 경험했던 사회·정치·공학적인 경험과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정치·공학적인 경험간에는 양적·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대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제한된 접촉은 서로

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세대간의 존경과 사랑마저 금기시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한다. 젊은이가 기존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에 동화될 수 없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근대화의 기수가 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부모세대들은 역사적 흐름의 과정중 어느 한 부분에서 등장한 가치·규범·공학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한마디로, 특정시대의 역사적·정치적 산물이 부모의 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의 관점과 견해를 근대화시킬 여유가 없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모든 경험을 동시에 수용하도록 개방된 존재로 등장한다. 젊은 세대는 보다 발전·성숙된 형식교육을 받는다. 전파매체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문화적·정치적 감각의 차이를 더욱더 심화시킨다.

학생의 현실참여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을 고수한다. 즉 대학생들의 정치적 운동은 어버이에 대한 증오의 심리적 기제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즉 오이디프스 컴플렉스(Oedipus Complex)에 의해 학생들의 현실참여가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모든 학생운동은 극단적인 폭력현상을 수반한다. 폭력현상은 자살, 자해, 최고 통치자에 대한 폭력적 거부(regicide) 같은 현상과 더불어 가열된다. 현정질서, 법질서 준수에 대한 거부, 기존 사회제도와 기관 붕괴 전략도 가미된다. 폭력현상을 야기시키는 주요 세력은 불투명한 하의식 혹은 무의식(subconscious)에서 창출된다. 무의식은 아동기로 되돌아 가려는 강한 욕구를 수반한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인해 아버지를 살상하고 싶어하는 충동과 욕구도 강하게 작용한다. 동시에 그런 충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폄하에 한없이 시달리게 된다.

세대간의 갈등이 꼭 가정에로만 국한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급기야 세대간의 갈등은 기성세대 전반, 대학, 정부에 대한 대항으로 진전되게 된다. 갈등의 도치현상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정을 아버지에 대한 증오보다는 보다 죄책감의 정도가 낮은 대상으로 메게되어진다. Feuer의 입장과는 달리 Stephene에게는 학생의 소요현상이 현실부정(the rejection of reality)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젊은이는 아버지를 향해 반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소요는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행사에 대한 인정거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학생소요 현상은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로 기술될 수 있다. 즉 오이디프스의 거부현상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반항자 자신의 심리·정신적 입장을 강화해 주는 방어적 도피와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권위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 운동권 학생들은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이전 단계인 성적 분화·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인성구조를 취한다. 즉 자기애, 자찬, 조바심과 인내력 결여 등의 인성구조를 갖고 있게 된다.

어떤 학자는 젊은이들이 오이디프스적인 갈등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오이디프스적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이디프스적인 갈등상과 직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판단한다. 이 문제는 퇴행현상을 수반한다. 오이디프스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사회 자체에 존재한다. 공학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사회는 사회문화적 전통을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는 새로운 변화에 합당할 만큼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지 못한다. 한마디로 세대간 가치전수 현상과정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분절적·단절적인 세대간 가치전수 현상은 세대간 위기(generation crisis)를 야기시킨다. 즉 젊은 세대가 '일정기간 동안(temporary)' 자기 자신을 아버지, 성인, 사회가 제시해 놓는 일정한 청소년상이나 모형과 분리시키는 현상이 야기되게 된다.

학생의 현실참여 현상을 정치적 권력장악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갈등의 결과로 판단하는 사회과학자들은 현실참여자들의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에 의하면 세대간 갈등의 개념은 전적으로 포기되어야 할 개념이다. 왜냐하면 세대간 갈등이라는

말 자체는 정치적 권력획득의 과정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대간의 갈등은 정치적 갈등이다. 모든 사회는 일군의 집단이 소속 구성원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사회생활 자체가 갈등과 변화의 연속으로 구성되게 된다.

성인들은 그들의 기성문화·가치·규범 등을 신진세대에게 부과시키려 한다. 정치적 권력을 보다 많이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격리시킨다. 성인들은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할 일이 있다고 규정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으로, 이론적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나 즐기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한마디로 정치문제에 대해 탁상공론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지 말라고 처방해 놓는다.

학생소요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고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그것은 첫째 청소년 집단의 인구증가율과, 둘째 경제구조의 경직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1945년 이래 20대 연령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반감되어 왔다. 첫째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었다. 종래 농경사회에서 유지했던 삼각형 방식의 인구분포가 유사 마름모꼴형으로 도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40~50대 인구수가 배가되고 있는 식의 유사 마름모꼴의 인구분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인구가 노령화되어 감으로써, 정치권력에 대한 욕구 역시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둘째 경제구조의 재편성 문제 역시 청소년집단의 정치적 권력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한마디로 젊은이를 지속적으로 충원해 줄 수 있는 노동구조의 폐쇄화, 중·장년층에 의한 주요 직책 독점과 선점 등은 젊은이에게 소외를 던져 주기 일쑤이었다. 한마디로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는 대학생 집단과 연장자 집단간의 정치적 균형을 파괴시키는 요소로 등장했다. 두 요소에 의해 정치구조는 더욱더 연장자정치(gerontocracy)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세대간에는 3가지 갈등이 있게 된다. 첫째 의사소통상의 갈등, 둘째 정치적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 상충, 세째 미래사회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게 된다.

Ⅳ. 학생운동을 통한 정치세력 집단화

학생의 현실참여를 신생 정치적 세력구축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세대간의 갈등 때문에 학생운동이 야기된다는 논리를 거부한다. 대신, 학생운동은 산업사회에서 주요 저항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역사적인 안목으로 전개한다. 즉 현대의 학생운동은 지난 세기에 있어서 나타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형태라고 제시한다.

학생운동세력을 정치적 세력으로 판단하는 사회과학자들은 학생운동을 근본적으로 사회정치적 불평등, 부패구조를 영속화시키려는 기존의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일련의 신생계급으로 취급한다.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학생운동세력을 이해하는 입장은 두 가지 관점으로 세분될 수 있다. 첫째 관점은 반문화(Counterculture)이론이며, 둘째 관점은 맑시즘에 기초한 학생운동이론(Marxist Protest)이다.

반문화운동의 전개가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초라고 판단하는 Roszak (1969)는 학생운동의 문화적 속성이 기존 성인시대의 문화적 속성과 판이하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운동의 문화는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는 주류문화적인 속성과 완전히 이탈되어 있다. 따라서 반문화는 많은 사람들 눈에는 거의 문화스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양마저 야만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다. 무엇인가 다르며, 무엇인가 유별나며, 기존의 부패문화로부터의 완전 탈피를 주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반문화운동은 산업사회의 결과로 나타난다. 반문화운동은 사실 정치적 성향이 결여되어 있기조차 하다. 반정치지향적이기까지 하다. 개인의 성취·성공은 비물질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진술된다. 개인의 발전·성숙 여부로 개인의 성취·성공 정도가 판단된다. 반문화운동은 통일된 양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떤 경우는 특수종교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반문화운동의 전개 양상은 모든 나라에 걸쳐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상황론(situationalism)으로 표출된 바 있다. 상황론

자들은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삶을 바꾸자는 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의식구조의 혁명(mental revolution)과 기존 행위양식의 철저한 변형이다. 삶의 유형과 사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반문화운동의 기수들은 자기의 삶부터 변형시켜 가꾸기 시작한다.

반문화운동은 두 세력으로부터 심한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다. 첫째 집단은 근대화 주창자들이다. 이들은 인류의 희망을 근대화와 산업공학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기술공학정치체제(technocracy)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공학의 발전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는 반문화운동권 학생들은 근대화론자들의 눈에는 하나의 무정부주의자(anarchist) 집단으로 비추어지게 된다. 둘째, 반문화운동권 학생들은 정통적 맑시스트들로부터 비판받는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무정부주의와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반문화는 근본적으로 혁명적 힘을 분산시키는 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현실참여를 정치사상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의 하나가 맑시스트적인 해석방법이다. 학생운동을 맑시즘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제 3 세계에서의 학생운동과 선진산업사회에서의 학생운동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제 3 세계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현실참여는 혁명지향적이다. 동시에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다. 반면, 서구사회에서는 반문화운동의 철학과 설익은 맑시즘, 보수주의 등의 정치사상이 혼재된 상태에서 학생운동이 전개된다.

맑시즘과 레닌이즘의 사상적 배경으로 무장한 운동권 학생들은 대학의 학문적 자세를 문제시한다. 대학은 대외적으로는 정치권력의 도구나 시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대내적으로는 학생들을 기존의 정치·사회구조에 얽매어 두려는 지식이나 양산해 내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따라서 운동권 학생들은 대학행정 및 교과과정 운영에의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다. 한마디로, 대학은 변혁되어야만 한다는 주장 아래 대학은 근본적으로 대학이 교육적으로 봉사하는 대상인 학생의 통제 아래 놓여져야만 한다고 그들의 입장을 강행한다.

전통적으로 맑시즘을 신봉하고 있는 운동권 학생들은 소련식 공산주의도 비판한다. 소련식 공산주의는 이미 복고주의화(reactionary)되어 버렸다고 판단한다. 대신, 급진주의적 운동권 학생들은 트로츠키(Trotsky)와 모택동사상을 이론적으로 수용한다.

트로츠키의 관점을 수용하는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면 단일국가에서 일어나는 혁명만으로는 진정한 사회주의 지향적 혁명에 도달할 수 없다. 영속적인 국제적 혁명에 의해서만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국제적 혁명을 시도하기 위해 관료주의에 철저히 대항하는 자생적인 정치집단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모택동사상을 수용하는 운동권 학생들은 소련식 공산주의와 트로츠키의 사상 둘 다를 비판한다. 소련식 공산주의는 복종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배척받는다. 반면, 트로츠키식의 운동은 무저항주의를 기본 신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배척받는다. 모택동사상 중심 운동권 학생들은 경제적 혁명과 사회적 혁명의 중요성을 같은 값어치로 내세운다. 그러나, 경제적 혁명과 사회적 혁명이 역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적 혁명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택동사상 중심 운동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혁명운동은 결코 마르쿠제(Marcuse)식의 문화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르쿠제식의 문화운동은 소위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모택동사상 중심 운동권 학생들에 의하면 진정한 궁극적인 혁명의 기수는 학생운동이 아니라, 억눌림 상황에 위치한 노동자 계급일 뿐이다.

V. 맺는 말

대학생의 현실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이론적 틀들은 다양하다. 즉 심리적 입장, 세대차이 관점, 신생세력 입장을 기저로 삼고 있는 여러 갈래의 하부관점들이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을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논의할 때는 학생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편협된 이해나 곡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더군다나 한국 대학에서 보여지는 학생의 현실참여 현상을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한국 대학생의 현실참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삼가해야 될 일일런지도 모른다. 서구 제3세계에서 풍미하는 학생운동의 이해틀로 한국 대학생의 사회참여운동을 이해하는 일이 바른 태도인지 어떤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역사·문화·정치적 상황은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적 조건과 비슷한 면보다는 상이한 면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생들의 현실참여 의지나 현상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표현되거나 야기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한다. 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현실참여 의지가 강하게 노출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한준상(1983)의 「한국 대학교육의 희생」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준상이 제시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진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교육기관이 더욱더 현대화되거나, 과학화되면 될수록,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기존의 정치구조와 이데올로기에 더욱더 연루되게 된다.

대학교육기관이 기존의 사회·정치구조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설정에 부심하면 부심할수록 대학교육기관은 더욱더 사회정치적 세력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유지는 개혁의지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 혹은 중앙집권적인 행정력 발휘로 돌출되어질 수도 있다.

대학의 교육적 기능이 개혁의지에 의해 표현되든 혹은 중앙집권주의적인 입장으로 표현되든 간에 관계없이 대학교육기관과 기존의 사회정치적 세력간의 무절제한 상호의존 및 공생관계는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를 3가지 양태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질서나 명령에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적 합리주의 창출, 둘째 중앙집권 통제방식의 비합리적 행정주의 강행, 세째 지적·인본주의 지향주의자들의 낭만주의적 계획론 난무현상이 혼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쪽으로는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변화를 본원적으로 억제하는 분위기를 팽배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변화와 금지가 서로 합성된 인격구조를 쌓게 될런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대학교육기관에는 조직화된 무책임성만이 배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부터 아무도 손실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조직화된 무책임성의 분위기 구조가 대학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대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학생소요를 야기시키는 문제 근원지의 속성을 떨구어 내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행정가, 교육자들은 대학교육이 무엇이며, 어떠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대학교육의 형태, 내용, 그 자체에 관한 문제에는 거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미래가 곧 지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는 상당한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미래가 지금이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며 성급한 느낌마저 준다. 심지어 그들의 요구들 중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입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현불가능하기마저 하다. 그러나, 그들이 기성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생각케 하고, 무엇인가를 재정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하다. *